

고대 서아시아-지중해 문화권 종교의 사후 심판 개념과 도상*

이승희**

- I. 머리말
- II.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의 사후세계관과 '지하세계'
- III. 이집트의 사후세계관과 '심판의 저울'
- IV. 그리스의 사후세계관과 '저승의 강'
- V. 페르시아 문화권의 사후세계관과 '심판의 다리'
- VI. 맺음말

I. 머리말

인류는 오랜 시간 동안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상상하며 다양한 사후세계관을 구축해왔다. 특히 고대 서아시아-지중해 문화권에서는 사후 심판 개념이 공통적으로 등장하며, 이는 단순한 신앙적 요소를 넘어 미술과 도상으로도 표현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들 문화권의 사후세계관과 도상에 대한 연구가 제한적이며, 나아가 고대 서아시아-지중해 문화권의 사후세계관이 시왕도와 같은 불교미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자체를 거의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서아시아-지중해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사후세계관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나타나는 방대한 사후세계관 전체를 밝히는 것은

*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3S1A5B5A 16076805)

** 국립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연구교수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본 연구에서는 특히 사후 심판과 관련된 도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리스, 조로아스터교 등에서 보이는 사후 심판 개념과 도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각 지역별 특징과 공통점을 비교할 것이다. 특히, 사후 심판이 강과 다리, 심판 장면, 저울 등의 도상을 통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이들 종교적 관념이 미술의 형식으로 구체화되는 양상을 고찰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Fig. 1. <시왕도 변상도의 제2·7일 초강대왕 장면> The 2nd and 7th Day Scene of King Ch'ogang in *Siwangdo* (Ten Kings Painting) and *Pyönsangdo* (Transformation Tableau), 10th Century, National Library of France, Pelliot Collection, No. 2003 (The Paper/Pengpai News, <https://m.thepaper.cn/>)

Fig. 2. <시왕도 변상도의 제4·7일 오관왕 장면> The 4th and 7th Day Scene of King Ch'ogang in *Siwangdo* (Ten Kings Painting) and *Pyönsangdo* (Transformation Tableau), 10th Century, National Library of France, Pelliot Collection, No. 2003 (The Paper/Pengpai News, <https://m.thepaper.cn/>)

사후 심판의 개념은 불교 미술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동아시아 불교미술 가운데 十王圖는 사후 심판이 이루어지는 세계를 가장 구체적으로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불화라 할 수 있다. 시왕도는 사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열 번의 심판과 윤회 과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데, 중국·한국·일본의 시왕도 도상과 표현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심판 장면을 중심에 둔 화면 구성이 유사하다. 특히 동아시아 시왕도의 원형을 보여주는 9~10세기 둔황의 시왕경변상도에서는 강과 다리, 심판의 저울 등의 도상이 등장한다(Figs. 1, 2). 이러한 요소들은 망자가 심판을 받기 전 강을 건너는 과정과, 생전의 업을 저울로 측정하여 죄의 무게를 판단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도상들은 고대 서아시아-지중해 문

화권에서도 중요한 사후 심판의 상징으로 등장하며, 이를 통해 불교미술과 이들 문화권 간의 사후세계관이 분명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서아시아-지중해 문화권의 사후 심판 개념을 특정 도상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해당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차이점과 공통점을 비교함으로써, 사후 심판 개념의 보편성과 지역적 변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미술에서 이러한 사후 심판 개념이 어떻게 시각적으로 표현되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동서 문화권 간의 종교적·미술적 교류를 조망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시왕도를 직접 다루지는 않지만, 그 형성의 기저에 놓인 보다 광범위한 사후 심판 개념을 조망함으로써, 향후 시왕도와와의 연계성을 밝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II.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의 사후세계관과 ‘지하세계’

사후 심판의 개념과 공간적 이해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이 서아시아 고대 문명의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다. 수메르어로 ‘쿠르(Kur)’, 아카드어로는 ‘에르세투(Eršetu)’라고 불리는 이 지역의 사후세계는 지하 깊숙한 곳에 존재하는 어둡고 음산한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이곳에서 죽은 자들은 그림자 같은 존재로 살아간다고 여겨졌다.¹

쿠르라는 용어는 사후세계를 향한 메소포타미아인들의 공간적 인식을 보여준다. 우주론적 관점에서 쿠르는 땅과 바다 사이에 존재하는 빈 공간과 같으며, 죽음의 그림자가 깃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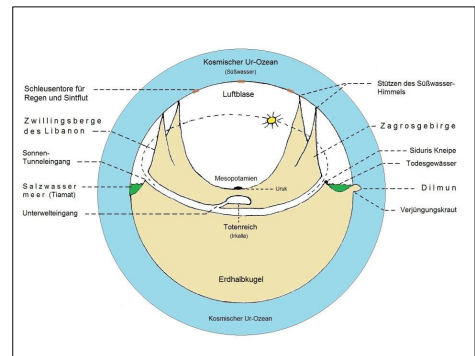


Fig. 3. <지하세계의 위치> The Location of the Underworld (Wikimedia, <https://www.wikimedia.org/>)

¹ 이외에 수메르어로 이르칼라(Irkalla), 쿠(Kukku), 아라리(Arali) 또는 키갈(Kigal)이라고도 부른다. M. Choksi, "Ancient Mesopotamian Beliefs in the Afterlife," World History Encyclopedia, published June 20, 2014, <https://www.worldhistory.org/article/701/ancient-mesopotamian-beliefs-in-the-afterlife/>; Caitlin Barrett, "Was Dust Their Food and Clay Their Bread? Grave Goods, the Mesopotamian Afterlife, and the Liminal Role of Inana/Ishtar," *Journal of Ancient Near Eastern Religions* 7, no. 1 (2007): 7-65.

곳이다(Fig. 3).² 수메르의 창세기에 의하면 우주적 담수 바다인 압주(Abzu)의 한가운데에서 지구가 창조되었다. 그리고 레바논과 자그로스산맥은 하늘을 이루는 담수층을 떠받치는 기둥 역할을 하며, ‘쿠르’는 각종 신화에서 땅 속에 있으며 사후세계로 향하는 입구가 동쪽 멀리 있는 자그로스산맥에 있다고 믿어졌다.³ 이곳에는 일곱 개의 문이 있으며, 죽은 자들은 이 문을 통과해야만 지하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이 지하세계를 다스리는 존재는 ‘에레쉬키갈(Ereshkigal)’ 여신이다.⁴ 에레쉬키갈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사랑과 전쟁의 여신으로 가장 사랑받았던 이슈타르(Ishar) 여신과는 자매 사이이다.⁵ 이 지하세계가 얼마나 어둡고 절망적인 곳인지 잘 보여주는 신화가 바로 《이슈타르의 명계 하강》에 잘 기록되어 있다.⁶

“빛이 사라지는 집, 먼지가 그들의 음식이요, 점토가 그들의 빵이다. 그들은 빛을 보지 못하며, 어둠 속에 거한다. 문과 빛장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다.”⁷

이슈타르는 인간 세계에서 절대적인 숭배를 받아 그 영향력은 하늘과 땅을 아우를 정도였다. 그러나 그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권력을 더욱 확장하고자 언니인 에레쉬키갈이 지배하는 지하세계 마저 정복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지하세계로 내려간 그녀는 일곱 개의 문

2 Carlos Gutiérrez Sáenz, “Enkidu and Gilgamesh,” accessed March 12, 2025, <https://uni-hamburg.academia.edu/UwePodolski>. 지구의 반구를 띠처럼 둘러싸며 흐르는 바다, 즉 ‘염수의 바다 티아마트(Tiamat)’는 이 그림에서 초록색 영역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동쪽에는 ‘노아의 섬 딜문(Dilmun)’이 위치해 있다. 이러한 세부 사항들—태양신 샴쉬(Shamash)의 터널, ‘시두리(Siduri)’의 술집, 그리고 저승 세계 ‘이르칼라(Irkalla)’—은 모두 《길가메시 서사시(Epic of Gilgamesh)》에서 가져온 것이다. 또한, 신 엔릴(Enlil)이 공기과 땅을 창조한 우주적 담수의 바다 ‘압주(Abzu)’는 수메르 창세 신화(Sumerian cosmogony)의 핵심 요소이다.

3 김산해, 『수메르, 최초의 사랑을 외치다』 (휴머니스트, 2007), p. 88.

4 그녀의 수하로 ‘네티(Neti)’가 일곱 개의 문을 지키는 수문장 역할을 한다. ‘남타르(Namtar)’는 에레쉬키갈의 전령이자 수행자로, 그녀의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또한 ‘갈라(Galla)’라고 불리는 괴물들은 불운한 영혼들을 쿠르로 끌고 오는 존재들이다. 그들의 역할을 통해 지하세계가 조직적인 구조를 갖추고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에레쉬키갈에 관해서는 Frans A. M. Wiggermann, “Nergal A. Philologisch,” *Reallexikon der Assyriologie und Vorderasiatischen Archäologie* 9 (2001): 218; Julia M. Asher-Greve and Joan G. Westenholz, *Goddesses in Context: On Divine Powers, Roles, Relationships and Gender in Mesopotamian Textual and Visual Sources* (Fribourg: Academic Press Fribourg and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3), 288.

5 이승희, 「메소포타미아의 여신 인안나/이슈타르 도상과 정체성의 변화」, 『동양미술사학』 18 (2024, 2), pp. 7-39.

6 원문은 다음 사이트 참고. <https://sacred-texts.com/ane/ishtar.htm>. 수메르 신화 《이난나의 명계 하강》과 아카드어 신화 『이슈타르의 명계 하강』에서는 이 여신이 저승의 여왕 에레쉬키갈과 대결하려다가 패배하여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묘사한다. 그러나 결국, 신 엔키의 도움을 받아 다시 살아 돌아오게 된다.

7 Stephanie Dalley, *Myths from Mesopotami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155. 이와 유사한 문장은 《길가메시 서사시》 제7판(혹은 제12판)에서 엔키두가 본 저승(이르칼라, Irkalla)의 묘사에서도 볼 수 있다. Benjamin R. Foster, *The Epic of Gilgamesh*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2001), 47.

을 지날 때마다 하나씩 소유물을 빼앗기며 점점 무력해졌다. 결국 마지막 문을 지나면서 모든 권위를 상실하고 맨몸이 되었으며, 완전히 무력화된 상태에서 에레쉬키갈의 명령에 따라 60가지 질병이 내려졌다. 그 결과, 이슈타르는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 그녀는 이후 신 ‘엔키(Ea)’의 도움을 받아 부활하지만, 대신 그녀의 남편 두무지가 지하세계에서 반년씩 살아야 하는 운명을 맞는다. 이슈타르가 하강한 지하세계가 우주적인 세계의 땅 아래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은, 기원전 2025년~기원전 1763년경의 초기 라르사(Larsa)에서 만들어진 이슈타르의 항아리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이 항아리에는 양손을 위로 올리고 날개를 단 채 지하세계로 내려오는 이슈타르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Fig. 4). 이슈타르가 하강하는 장면에서 위로 날아오를 수 있는 새의 모습과 주변에 묘사된 물고기, 거북 등의 수생동물들은 우주적 담수 바다인 압주(Abzu)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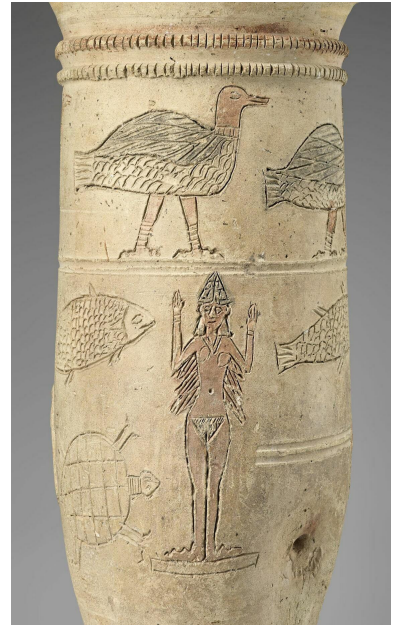


Fig. 4. <라르사의 항아리에 묘사된 이슈타르의 하강> Ishtar's Descent Depicted on the Vase of Larsa, 2025~1763 BCE, Excavated in Larsa, Louvre Museum (Louvre Museum, <https://collections.louvre.fr/>)

바빌로니아(1895년~1595년 BCE, 627년~539년 BCE) 및 아시리아(2500년경~609년 BCE) 시대가 되면, 사후세계에 본격적인 법정(Judgment)의 개념이 등장한다. 이를 보여주는 신화가 바로 ‘네르갈과 에레쉬키갈(Nergal and Ereshkigal)’이다.⁸ 네르갈(Nergal)은 전쟁, 죽음, 질병을 관장하는 신으로, 이후 에레쉬키갈과 결혼하여 지하세계를 공동으로 통치하게 된다. 네르갈은 에레쉬키갈과 함께 죽은 자들의 운명을 결정하며, 심판을 내리는 역할을 수행했다.⁹ 동시대의 다른 신화 및 주술 문헌에서 역병과 죽음을 관장하는 신이자 저승의 지배자로서 죽은 자들의 행방과 처벌을 결정하는 역할을 했다고 전해진다.

⁸ “The Marriage of Nergal and Ereshkigal: A Tale of Power and Balance.” *Mifologia*, 2025년 2월 11일 검색, <https://www.mifologia.com/>; Stephanie Dalley, “Nergal and Ereshkigal,” in *Myths from Mesopotami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⁹ Wiggermann, “Nergal A. Philological,” 221.

《길가메시 서사시(Epic of Gilgamesh)》에서도 직접적인 재판 장면은 없지만 길가메시가 죽은 자들에게 심판을 내릴 권한이 있는 존재로 암시된다.¹⁰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그는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자신의 운명이 신들의 회의에서 결정되는 꿈을 꾸다. 아누(An)와 엔릴(Enlil)은 길가메시에게 영생을 허락하려 하였지만, 엔키(Enki)가 이를 반대한다. 결국 길가메시는 ‘지하세계의 총독(governor of the Netherworld)’이 되어 망자들을 심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길가메시가 지하세계의 심판자로 등장하는 전통은 수메르 문헌 《우르남마의 죽음(The Death of Urnamma)》에서도 나타난다.¹¹ 이 문헌은 기원전 2100년경 우르 3왕조를 건설한 왕 우르남마(2112~2075 BCE)의 죽음을 묘사한다. 우르남마가 지하세계로 들어가자, 그는 저승의 신들에게 예물을 바치며 축제 연회를 연다. 이어 그는 지하세계의 주요 신들에게 공물을 바치는데, 네르갈에게는 곤봉과 활, 화살 등을, 길가메시에게는 창과 방패, 전투용 도끼 등을 바쳤다. 우르남마가 저승의 신들에게 적절한 예물을 바친 후, 우르남마는 명계에 거처를 마련되었고, 위대한 옥좌에 앉게 되었다. 그리고 에레쉬키갈의 명령에 따라, 전쟁에서 죽은 모든 병사들과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왕(우르남마)의 손에 넘겨졌다. 우르남마는 그의 사랑하는 형제 길가메시와 함께 저승에서 심판을 내리고, 저승의 판결을 수행하게 되었다.¹²

이처럼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는 사후세계가 지하 땅 밑에 존재하며, 죽은 자들은 심판의 과정을 겪는다. 이러한 심판 과정은 특정 신들이 수행했으며, 특히 ‘운명의 신들(Anunnaki 신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심판이 생전의 행위에 따라 이루어지겠지만 《우르남마의 죽음》에서 볼 수 있듯이 명확한 심판의 기준이 있었다기보다는 망자 혹은 자손의 노력 여하에 따라 사후세계에서의 삶은 달라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¹⁰ “Epic of Gilgamesh,” *Britannica*, 2025년 2월 11일 검색, <https://www.britannica.com/topic/Epic-of-Gilgamesh>,

¹¹ “The Death of Ur-Namma (Ur-Namma A): A Version from Nippur,” lines 132-144, 2025년 2월 11일 검색, <https://etcsl.orinst.ox.ac.uk/>.

¹² Carolina López-Ruiz, Fumi Karahashi, and Marcus Ziemann, “They Who Saw the Deep: Achilles, Gilgamesh, and the Underworld,” *KASKAL: Rivista di storia, ambienti e culture del Vicino Oriente Antico* 15 (2018): 87-90.

Ⅲ. 이집트의 사후세계관과 ‘심판의 저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고대 종교에서 사후세계는 우주적인 관점에서 지형적으로 인식되었으며, 그 죽음의 공간에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관념이 존재했음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집트에서의 사후세계관은 어떠했을까? 고대 이집트인들은 죽음을 단순한 생명의 끝이 아니라 사후 세계로 향하는 여정으로 이해했다. 그들은 사후에도 삶이 지속된다고 믿었으며, 이를 위해 생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믿음은 이집트 《사자의 서》(Book of the Dead), 무덤 벽화, 장례 의식, 피라미드 및 신전 건축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특히, 죽은 자가 사후 심판을 거쳐 최종적으로 영생을 누릴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개념은 이집트의 종교적 세계관에서 핵심적인 요소였다.

사자의 여정과 사후 심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¹³ 고대 이집트에서 죽은 자는 육체와 분리된 영혼이 되어 태양신 ‘라(Ra)’의 배를 타고 어둠의 계곡을 건너 ‘두아트(Duat)’로 향한다고 믿었다.¹⁴ 고대 이집트의 장례주문집인 《관의 서(Coffin Texts)》에서는 하늘의 영역을 중심으로 한 《피라미드 텍스트(Pyramid Texts)》와 달리,¹⁵ 저승 세계의 지하적 요소를 강조한다. 두아트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알고 있던 세계의 모습과 유사했다. 강, 섬, 들판, 호수, 언덕, 동굴과 같은 현실적인 지형이 존재하였으며, 저승의 거주자들에 대한 묘사도 포함되어 있다. 이중 〈두길의 서(Book of Two Ways)〉에서는 고대 이집트 최초의 저승지도가 그려져 있다. 사후세계로 가는 두 가지 길은 육로와 수로로 묘사된다(Fig. 5).¹⁶

13 Stephen Hosea Vongdip and Agai Matthew Jock, "A Conceptual Study of the Judgment of the Dead in Ancient Egypt," *Journal of Culture, History and Archaeology* 5, no. 1 (January 2025): 1-9.

14 이집트 신화에 따르면, 라(Ra)는 너무 늙고 지쳐 더 이상 지상에서 통치할 수 없게 되자, 왕좌를 내놓고 하늘로 올라갔다. 태양신으로서 그의 임무 중 하나는 태양의 바크(solar barque)를 타고 하늘을 가로질러 낮 동안 세상을 밝히는 것이었다. 그러나 해가 지고 황혼이 오면, 그는 자신의 배와 함께 서쪽의 아케트(akhet, 지평선)를 지나며 저승으로 여행했다. 때때로 이 지평선은 두아트(Duat)로 이어지는 문이나 문턱으로 묘사되었다. 저승의 여정을 시작한 후, 그는 지하의 나일강을 따라 항해하며 열두 개의 문과 지역을 지나야 했다. 이 여정 중에 그는 숫양의 머리를 한 모습으로 변신했다. George Hart, *A Dictionary of Egyptian Gods and Goddesses*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86), 68-72, 179-182.

15 《피라미드 텍스트》는 고대 이집트에서 가장 오래된 장례 문헌으로, 고왕국 시대(Old Kingdom) 후기에 등장하였다. 이는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고대 이집트 종교 문헌이다. 고이집트어(Old Egyptian)로 기록된 이 텍스트들은 사카라(Saqqara) 지역의 피라미드 지하 벽과 석관(sarcophagi)에 새겨졌다. 이는 제5왕조 말기부터 제6왕조, 그리고 일부는 제1 중간기(First Intermediate Period)의 제8왕조까지 이어졌다. 가장 오래된 기록들은 대략 기원전 2400~2300년경으로 추정된다. 《피라미드 텍스트》는 오직 파라오만 사용할 수 있었고, 그림이 없이 글자만으로 기록되어 있다. "Pyramid Texts," 2025년 2월 11일 검색, <https://pyramidtextsonline.com/>.

16 《관의 서(Coffin Texts)》는 고대 이집트의 장례 주문집으로, 기원전 2100년경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John H. Taylor, *Death and the Afterlife in Ancient Egypt*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1), 34. 육로와 수로는 모두

이 과정에서 사자는 여러 개의 성문을 통과해야 했으며, 각 성문마다 수호자와 문지기가 있었다. 사자가 성문을 무사히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올바르게 부르며 경의를 표해야 했으며, 이를 위해 《관의 서》, 후대에는 《사자의 서》에 기록된 주문과 마법을 숙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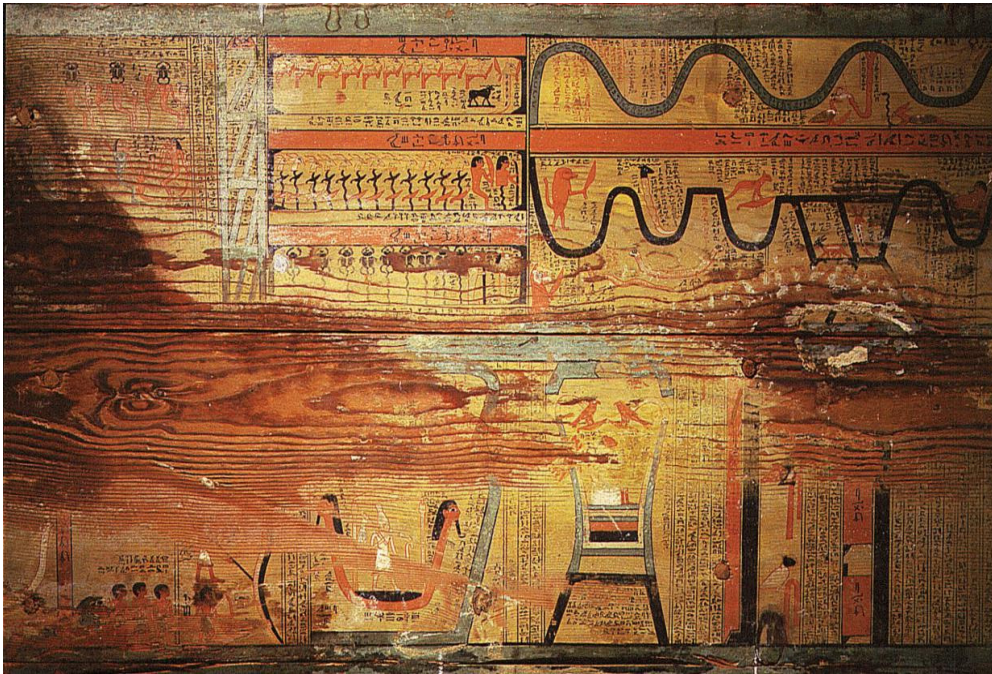


Fig. 5. <총독 제후트호텝의 의사 구아의 관 바닥에 묘사된 두 길의 서> The Book of Two Ways Depicted on the Floor of the Sarcophagus of Gua, Physician to Governor Djehutyhotep, 1795 BCE, British Museum (Archaeology Magazine, <https://archaeology.org>)

위험한 장소를 지나야 하며, 서로 교차하거나 병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목적지에 닿지 못하고 막다른 길이 되기도 한다. 길의 중심에는 '불의 호수(Lake of Fire)'가 위치하며, 망자는 이 호수에서 길을 선택해야 한다. 호수와 강을 건너야 하는 경로인 수로는 물 속에 악마나 괴물들이 존재하여 망자의 진실성을 시험한다고 한다.

¹⁷ 《관의 서》는 기원전 2100년경(중왕국 시대, Middle Kingdom)에 등장하고, 《사자의 서》는 기원전 1550년경(신왕국 시대, New Kingdom)부터 사용된다. 원래 왕족에게만 허용되던 《피라미드 텍스트》와 달리, 《관의 서》는 일반 귀족과 부유한 시민도 사용할 수 있었다. 《관의 서》에서는 망자가 오시리스(Osiris)를 따라 사후 세계에서 부활하는 개념이 강조되었다.

사자는 수많은 위협과 장애물을 극복한 후, 마침내 오시리스(Osiris)의 심판장에 도달하게 된다.¹⁸ 망자는 심판장에 도착해서는 우선 스스로 무죄를 주장해야 했다.¹⁹ 그는 신들 앞에서 자신이 생전에 도덕적인 삶을 살았으며, 살인, 도둑질, 간통 등의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선언해야 했다. 이집트인들은 단순히 신들의 뜻에 의해 사후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망자가 생전에 올바르게 살았는지가 사후 구원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믿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도덕적 심판의 개념이 거의 없는데 비해 생전의 죄와 사후의 운명이 직접 연결된다는 이집트인의 믿음은 상당히 진전된 사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오시리스가 주재하는 가운데 42명의 심판관 앞에서 열리는 마아트(Ma'at, 정의)와 심장의 저울 심판은 생전의 도덕성이 사후 세계에서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임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마아트는 날개 달린 여신으로 길고 가벼운 타조 깃털을 머리에 꽂고 있는데, 이 깃털이 마아트의 대표적인 상징이다.²⁰ 깃털은 정의와 진리를 상징하며, 죽은 자의 심장은 오시리스의 법정에서 마아트의 깃털과 저울에 올려져 비교된다. 만약 심장이 깃털보다 가벼우면, 망자는 영생을 얻게 되지만, 심장이 무거우면 영혼을 삼키는 괴물 '암무트'에게 먹혀 영혼이 소멸된다고 믿었다.²¹

이러한 사후세계관이 잘 표현된 예가 <후네페르의 사자의 서>의 심판 장면이다(Fig. 6). 이집트 벽화 속 사후 심판 장면은 한 쪽의 이야기처럼 구성되어 있다. 어두운 사후 세계의 입구에 도착한 망자는 두려운 얼굴로 서 있다. 그의 앞에는 검은 자칼 머리를 한 신, 아누비스(Anubis)가 서서 그를 안내하고 있다. 아누비스는 한 손으로 망자의 손을 잡고 있으며, 벽화의 중앙에는 거대한 저울이 자리 잡고 있다. 저울의 한쪽에는 망자의 심장이 올려져 있고, 반대편에는 가볍

18 이집트의 신 오시리스(Osiris)는 부활과 심판의 신으로 여겨졌으며, 그는 죽은 자를 심판하는 역할을 하였다. 오시리스식 사후 세계(Osirian afterlife)는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으며, 심지어 망자는 “오시리스-「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 지하 세계는 위협적인 존재들, 함정, 덫으로 가득한 곳으로, 망자는 이를 극복해야 한다. <관의 서>에 등장하는 주문들은 망자가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두 번째 죽음’(second death)을 피할 수 있도록 돕는다.

19 부정 고백(죄 없음의 선언)은 사후 세계에서 심판을 받을 때 망자의 영혼이 결코 저지르지 않았다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42가지 죄 목록이다. 영혼은 신들의 면전에서 이를 낭독하며, 신들은 그 진실성을 저울질하여 망자의 운명을 결정했다. 가장 유명한 목록은 아니의 파피루스(The Papyrus of Ani)에서 발견되며, 이는 이집트 <사자의 서>의 일부로, 테베의 사제였던 아니(Ani, 1250년경 BCE)를 위해 작성되었다. 2024년 2월 1일 검색, https://www.worldhistory.org/The_Negative_Confession/.

20 N. J. van Blerk, “The Emergence of Law in Ancient Egypt: The Role of Maat,” *Fundamina* 24, no. 1 (2018): 69-88; N. J. van Blerk, “The Ancient Egyptians’ Religious World: The Foundation of Egyptian Law,” *Journal for Semitics* 28, no. 1 (2019): 7-13.

21 Ayoub Laissouf, “Death, Funeral Rituals, and Afterlife in Ancient Egypt,” Self-published, Academia.edu, 2015 (Accessed January 13, 2025, https://www.academia.edu/24371541/Death_Funeral_Rituals_and_Afterlife_in_Ancient_Egypt).



Fig. 6. <후네페르 파피루스의 심판 장면> Judgment Scene from the Papyrus of Hunefer, *The Book of the Dead* (Scribe of the 19th Dynasty), 13th Century BCE, Egypt, British Museum (British Museum, <https://www.britishmuseum.org/>)

고 섬세한 마아트트의 깃털이 놓여 있다. 저울의 균형은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으며, 저울을 조작하는 아누비스의 표정은 신중하고 엄숙하다. 저울 옆에는 머리가 따오기(이비스) 모양인 신 토트(Thoth)가 서서 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있다. 그는 날렵한 필체로 심판의 결과를 기록하고 있으며, 눈은 저울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저울이 기울어지는 순간, 망자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저울 바로 아래에서는 끔찍한 모습의 괴물, 암무트(Ammut)가 몸을 낮추고 있다. 악어의 머리, 사자의 상반신, 하마의 하반신을 결합한 암무트는 입을 크게 벌린 채, 무겁게 기운 심장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심장이 깃털보다 무거워지면, 암무트는 그것을 집어삼켜 망자의 영혼을 영원히 소멸시킬 것이다.

<후네페르의 사자의 서>에서는 심판 이후의 과정도 확인할 수 있다. 오시리스의 의자 바닥에서 나온 수련 위에서 서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이다. 이집트인들은 죽음을 삶의 끝이 아니라, 이집트와 유사한 또 다른 세계에서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보았고, 사후 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망자는 ‘갈대의 들판(Field of Reeds)’이라 불리는 천국으로 인도되었다.²² 갈대의 들판은 현실 세계와 매우 유사한 모습으로 묘사되었으며, 푸른 하늘, 배, 강, 풍요로운 경작지가 존재하는 곳이었다. 이곳에서 망자는 영생을 누리며, 다시 농사를 짓거나 일상을 이어갔다.

22 “Field of Reeds (Aaru),” 2025년 2월 11일 검색, https://www.worldhistory.org/Field_of_Reeds/.



Fig. 7. <쿠푸의 배> Khufu's Ship, c. 2500 BCE, Old Kingdom, Egypt, H. 5.9m, L. 43.4m, Excavated at the Giza Pyramid Complex, The Grand Egyptian Museum (Wikipedia, <https://www.wikipedia.org/>)

고대 이집트인들은 현실 세계에서의 삶을 지속하는 것이 이상적인 사후 세계라고 믿었기 때문에, 천국 역시 이집트의 자연환경과 일상 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그려졌다.²³

한편 고대 이집트인들은 사후 세계로 가는 과정에서 영혼을 불멸로 인도해주는 이동수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태양신 라의 배이다. 초기 인류는 과학이 일상적인 현상을 설명하지 못했던 시기이므로 종교를 이용해 자연 현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는데,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도 자연의 패턴을 반영하였다. 이집트에서는 밤이 오면 망자의 여정이 시작되고, 태양이 떠오르면 새로운 하루 뿐 아니라 삶도 시작한다고 여겼다. 이러한 믿음은 하늘과 저승을 향해하는 신성한 배를 타고 이동하는 태양신 라의 존재로 구현되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태양이 매일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을 라의 항해로 해석했으며, 밤이 되면 그가 저승(Duat)을 지나 동쪽으로 이동하면 다시 새벽을 맞이한다고 믿었다.

이집트에서 배는 태양신 라가 매일 밤 저승을 향해하는 운송 수단이자, 죽은 자들이 사후 세계로 가는 여정을 돕는 신성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파라오와 귀족들은 자신들이 사후 세계에서 태양신의 항해를 따라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배를 무덤과 함께 묻기도 하였다. 《사자의 서》에 따르면, 신앙심이 깊고 정당한 삶을 산 자들은 라의 배에 올라 그의 항해에 동참하여 사후 세계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었다. 이러한 신앙은 무덤 벽화나 피라미드 텍스트에서 라의 배를 타고 여행하는 망자의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또한, 일부 장례 의식에서는 망자

23 망자가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라화(mummification)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집트인들은 신체가 온전한 상태로 보존되어야만 영혼이 부활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이를 위해 정교한 미라 제작 기술을 발전시켰다. 미라화는 단순한 방부 처리 과정이 아니라, 망자가 오시리스와 동일시되기 위한 신성한 의식이었다. 망자의 부활은 오시리스 신화에서 유래한 개념으로, 오시리스가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한 것처럼, 망자 역시 올바른 의식을 거치면 사후 세계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믿었다. Laissouf, "Death, Funeral Rituals, and Afterlife in Ancient Egypt."

를 상징하는 조각이나 관을 태양의 배 모양으로 만들거나, 배 모양의 부장품을 함께 묻는 관습이 존재했던 것도 이와 같은 요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쿠푸(Khufu, c. 2543-c. 2436 BCE)의 배이다(Fig. 7).²⁴ 이 배는 기원전 약 2500년경, 고대 이집트 구왕국 제4왕조 시기에 파라오 쿠푸의 대피라미드 옆의 구덩이에서 봉인된 채 발견되었다. 다른 고대 이집트의 매장용 선박들과 마찬가지로, 이 배는 사후 세계에서 사용하기 위한 무덤 부장품의 일부였다고 추정된다.²⁵

태양신 라의 항해와 망자의 사후 여행이 배라는 모티브를 통해 연결되는 것은 배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영원한 순환과 재생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배는 신성한 존재들과의 연계를 의미하며, 단순한 강이나 바다를 건너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수단으로 인식한 것이다.

IV. 그리스의 사후세계관과 ‘저승의 강’

이집트의 사후세계관과 마찬가지로 그리스 신화에서도 배는 죽음의 세계로 가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이집트의 사후세계관에서 배는 영원의 순환을 상징하는 중요한 모티브라고 한다면 그리스에서는 죽음의 불가피성과 경계를 넘는 과정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스 사후세계관에서 보다 중요한 개념은 저승의 강이다.

그리스에서 죽은 자의 영혼이 가는 곳은 지하세계인 하데스(Hades)이다(Fig. 8).²⁶ 죽은 자의 영혼은 신체로부터 빠져나오는 즉시, 혹은 매장 후에 하데스로 곧장 가는데 영혼의 안내자의 인도를 받는다. 이때 영혼의 안내자는 헤르메스이다.²⁷ 하데스는 땅 밑에 있으나 ‘서쪽’으로 땅 가장자리를 둘러싸고 있는 오케아노스를 건너 있는 곳이다.²⁸ 호메로스(기원전 8세기 출

²⁴ 쿠푸, 2025년 1월 25일 검색, <https://www.britannica.com/biography/Khufu>.

²⁵ Nancy Jenkins, *The Boat Beneath the Pyramid: King Cheops' Royal Ship*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80).

²⁶ 『일리아스』나 『오디세이아(Odyseia)』에서 ‘영혼이 땅 밑으로 사라진다’라거나 ‘하데스의 집으로 내려갔다’ 등의 표현을 함으로써 땅 ‘아래’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장영란, 「고대 그리스의 죽음과 영혼의 제의의 철학적 의미」, 『동서철학연구』 31 (2004), p. 13, 주 40 참고.

²⁷ 『오디세이아』 제24권에서 헤르메스는 죽은 영혼을 하데스로 인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025년 1월 23일 검색, <http://www.davincimap.co.kr/>.

²⁸ 오케아노스 강은 우주의 강으로 세계를 원형으로 감싸고 흐르며 영원한 생명력을 나타낸다. 따라서 그것을 건너가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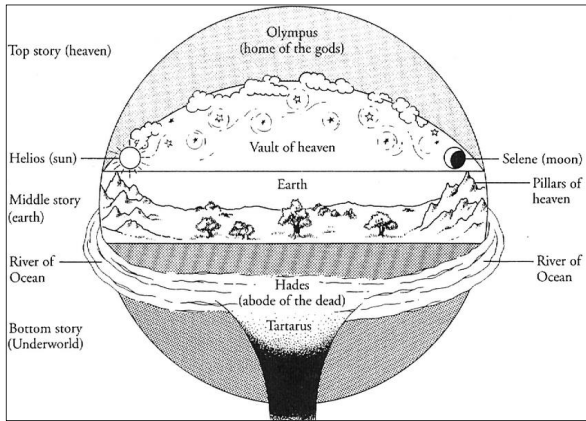


Fig. 8. <하데스의 위치> The Location of Hades (ResearchGate, <https://www.researchgate.net/>)

생)의 『오디세이아(Odysseia)』에는 죽은 자들의 세계와 산자들 건너의 세계를 분명하게 구분해주는 강이 하나 나온다. 그것은 바로 스틱스(Styx) 강이다.²⁹ 이 강은 오케아노스의 딸들 중 가장 나이 많은 딸이라고 한다.³⁰ 『오디세이아』에서는 이 강이 여러 개로 분화하여 퀴리플레게톤강(Pyriphlegeton, 한탄의 강, 불타는 강), 코퀴토스강(Kokytyos, 한탄의 강), 아케론강(Acheron, 비통의 강)이 등장한다(Fig. 9).³¹ 헤르메스는 죽은 자의 영혼을 여기까지 데려다주고 뱃사공 카론(Charon)에게 넘겨준다. 카론은 두 세계의

경계를 넘나드는 인물로,³² 그는 죽음의 세계로 가는 영혼들을 태워주지만 아무도 되돌아오게 해주지 않는다. 죽은 자들은 뱃사공 카론에게 뱃삿을 주어야 했으므로 고대 그리스인들은 시신의 입에 동전을 넣어주었다고도 한다.³³

처음 건너는 강을 비통의 강이라고 하는데, 이는 죽은 자들이 자신의 죽음을 비통히 여겨 울며 건너기 때문에 붙인 명칭이다. 두 번째로 자나는 강은 코퀴토스로 시름의 강이다. 이 강을 건널 때는 강물에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 비치기 때문에 시름에 젖게 된다고 한다. 세 번째 강은

는 죽음을 뜻할 것이며, 그것 너머 있는 곳은 바로 죽음의 세계를 가리킬 것이다. 엄밀히 오케아노스의 '원' 안에는 살아있는 것이 존재하지만 '원' 밖에는 살아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장영란, 앞의 논문, p. 13.

29 『오디세이아』에서는 스틱스 강이 직접적으로 등장하기 보다는 저승의 강들로 묘사된다. 헤시오도스의 『신통기(Theogony)』에서 스틱스는 오케아노스(바다의 신)의 딸이며, 티탄 신족과 올림포스 신들의 전쟁에서 제우스를 도운 덕분에 신들의 맹세를 관장하는 강으로 나오며,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Aeneid)』에서 영웅 아이네이스가 저승으로 내려가며 스틱스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온다.

30 헤시오도스는 '두려운' 스틱스 강이 오케아노스의 딸들 중 가장 나이 많은 딸이라고 하였다. 장영란, 앞의 논문, p. 13.

31 『오디세이아』 제24권에서 헤르메스는 죽은 영혼을 하데스로 인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025년 2월 14일 검색, <http://www.davincimap.co.kr/davBase/Source/davSource.jsp?Job=Contents&SourID=SOUR001145&Lang=%EC%98%81%EB%AC%B8>.

32 카론은 『아이네이스(Aeneid)』 권6에서 무서운 노인의 모습으로 더러운 수염과 거친 옷을 거친 뱃사공으로 묘사된다.

33 이는 그리스 장례 풍습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관습이고, 고대 그리스 뿐만 아니라 헬레니즘과 로마시대까지 이어졌으며, 아리스토파네스(Aristophanes)의 『개구리(Frogs)』(406 BCE), 루키아노스(Lucian, 2세기)의 『사자들과의 대화(dialogue)』 등의 문헌과 고고학적 발굴에서도 증거가 발견된다. Ian Morris, *Death-ritual and Social Structure in Classical Antiqu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106; 2025년 1월 1일 검색. <https://www.britannica.com/topic/Charon-Greek-mythology>.

퀴리플레게톤 강으로 불길의 강이라고도 한다. 앞의 접두어 ‘퀴리’가 ‘불타는’을 의미하므로 보통의 물이 흐르는 강이 아니라 불길이 흐르는 강, 죽은 자의 영혼은 이곳에서 불태워져 정화된다. 다음으로 망각의 강인 레테의 강을 지나면 퀴리플레게톤에서 불로써 정화된 영혼은 레테 강물을 마시고 자신의 모든 과거를 잊게 된다.³⁴ 이 중에서 스틱스강이 가장 크고 유명하여 흔히 이승과 저승의 경계로 여겨지는데, 망자들이 이승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스틱스강이 이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스틱스강은 명계를 아홉 번 휘감아도는 강으로 플레게톤, 아케론과 코키투스, 레테는 저승의 한가운데의 거대한 늪에서 합류한다.³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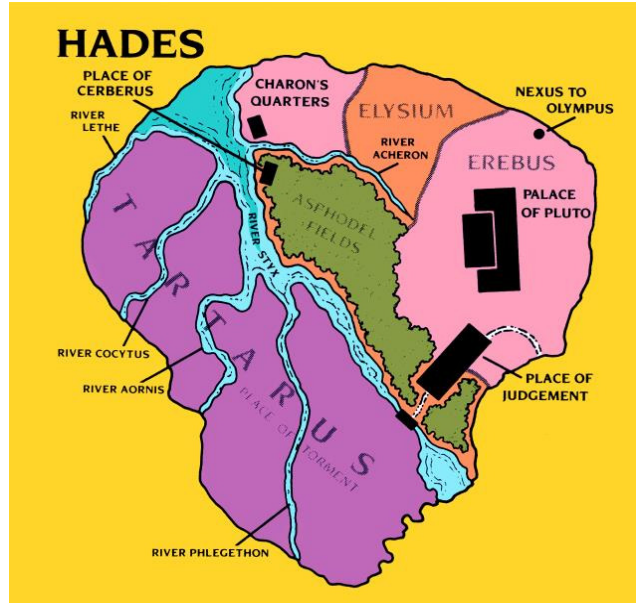


Fig. 9. <하데스의 지형> The Topography of Hades (Pinterest, <https://www.pinterest.com>)

스티스강을 건너 저승에 도착한 영혼들은 미노스(Minos) 3형제(미노스, 라다만티스, 아이아코스)의 심판을 받는다.³⁶ 이들은 영혼이 생전에 행한 행동을 바탕으로 그들이 머물 곳을 결정하며, 사후세계는 크게 세 영역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엘리시온(Elysium)으로, 정의롭고 올바른 삶을 산 이들이 가는 낙원의 들판이다. 두 번째는 하데스의 명계(Hades)로, 특별한 선행도 악행도 없이 평범한 삶을 산 영혼들이 머무는 곳이다. 마지막으로 타르타로스(Tartarus)는 극악한 죄를 저지른 자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 장소로, 하데스보다 더 깊은 곳에 위치하며 혼돈과 어둠이 가득한 곳이다.³⁷

³⁴ 레테의 강은 플라톤의 『국가(Republic)』에 등장한다. 플라톤은 죽은 후에 하데스로 간 영혼들이 운명의 여신들(Moirai) 앞에서 다음의 삶을 선택한 후 레테(Lethe)의 평야로 가게 된다고 말한다. 이때 모든 영혼들은 감증을 느끼게 되어 무심(Ameletes)의 강물을 마시게 되고 망각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장영란, 앞의 논문, p. 45의 주 42 참고.

³⁵ 스틱스와 관련된 문헌의 원문이 정리되어 있다. 2025년 1월 25일 검색, "STYX," <https://www.theoi.com/Khthonios/PotamosStyx.html>.

³⁶ 오디세우스가 저승(하데스)에 방문하는 네케이아(Nekyia) 장면에서 미노스(Minos)가 망자들의 심판을 담당하는 장면이 등장한다(『오디세이』 권11). 그리고 플라톤의 대화편인 『고르기아스(Gorgias)』와 『파이돈(Phaedo)』에서도 미노스, 라다만티스, 아이아코스가 죽은 자들을 심판하는 존재로 언급된다.

³⁷ 2025년 1월 24일 검색, <https://www.britannica.com/topic/Tartarus>.

그리스 신화에서 사후세계관은 메소포타미아 및 이집트 신화와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과 공통점을 지닌다.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그리스 신화에서는 강을 건너야만 저승에 도착할 수 있다는 개념이 강조된다는 점이다. 스틱스강은 이승과 저승을 분리하는 결정적인 경계이며, 이 강을 건너지 못한 영혼은 저승에 도달하지 못하고 강가를 떠돌게 된다. 반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신화에서는 강을 건넌다는 요소가 강조되지 않으며, 대신 사후세계에 진입한 영혼이 특정한 심판을 거쳐 머물 곳이 정해지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그리스와 이집트 신화 모두에서 영혼이 생전의 삶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는 점은 공통의 요소이다. 이집트 신화에서는 영혼이 저승의 신 오시리스 앞에서 저울 심판을 받아, 진실의 깃털과 비교해 무게를 달게 된다. 이때 영혼이 가벼우면 영생을 얻을 수 있지만, 무거운 영혼은 소멸의 운명을 맞게 된다. 이는 이집트인들이 사후세계를 단순한 죽음의 연장선으로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그들에게 사후세계는 이승과 밀접하게 연결된 곳으로, 영생과 부활이 무엇보다 중요한 개념이었다. 따라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순환하는 과정의 일부로 여겨졌고, 태양의 배와 같은 개념 역시 이러한 사상을 반영하고 있다.

반면 그리스 신화에서 사후세계는 이승과 완전히 단절된 세계로 인식되었다. 스틱스강을 건너야만 저승으로 갈 수 있다는 설정은 사후세계가 단순히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이승과 확연히 구분되는 별개의 차원임을 강조한다. 또한, 죽은 자는 단순히 무(無)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전의 행적에 따라 철저한 심판을 받으며, 그 결과에 따라 엘리시온, 하데스, 타르타로스 중 한 곳에 머물게 된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플라톤을 비롯한 철학자들의 사상이 영향을 미치면서, 그리스 신화 속 사후세계관은 단순한 신화적 개념을 넘어 윤리적·도덕적 심판의 논리로 발전하였다. 초기에는 엘리시온이 신들에게 선택받은 자들만이 갈 수 있는 장소였으나, 후대로 갈수록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산 사람도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개념으로 변화했다. 또한, 평범한 영혼이 머무는 아스포델 평원(Asphodel Meadows)이라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단순히 선과 악의 이분법적 구분을 넘어 보다 세분화된 사후세계 구조가 정립되었다.³⁸

38 배상식, 「플라톤 '타르타로스'의 도덕교육적 함의」, 『초등도덕교육』 49 (2015. 9), pp. 143-177; 『국가』 10권에서 플라톤은 에르의 신화에서 세 심판관이 인간의 생전 행위를 평가하여 엘리시온, 아스포델, 타르타로스로 영혼을 보낸다고 묘사된다.

V. 페르시아 문화권의 사후세계관과 ‘심판의 다리’

고대 서아시아 지역의 사후세계관은 다양한 문화적·종교적 요소들이 융합되면서 발전해 왔다. 이러한 문화적 교류 속에서 조로아스터교(Zoroastrianism)는 지중해 문화권의 사후세계관을 일부 수용하면서도 독자적인 세계관을 확립하였다. 기원전 6세기경 고대 페르시아의 국교였던 조로아스터교는 예언자 조로아스터(Zarathustra, Zoroaster)에 의해 창시되었으며, 유일신 아후라 마즈다(Ahura Mazda)를 중심으로 한 신앙을 기반으로 발전하였다. 조로아스터는 세상의 본질을 선(Spenta Mainyu)과 악(Angra Mainyu)의 투쟁 속에서 이해하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제시하였으며, 인간이 생전에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윤리적 행위에 따라 사후 심판이 이루어지며, 그 결과에 따라 영혼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뉜다는 개념이 조로아스터교 신앙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

조로아스터교의 이러한 세계관과 사후 관념은 동서 종교에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마니교, 기독교 등의 종교적 개념 형성에 기여하였다. 특히, 조로아스터교의 사후 심판 개념과 종말론적 구원관은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까지 확산되며 불교 및 도교의 윤회사상과도 접점을 형성하였다.

조로아스터교의 사후 세계는 생전에 행한 도덕적 선택에 따라 결정되며,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친다. 인간이 사망하면 영혼은 3일 동안 시신 주변을 머물며 생전에 자신이 행한 선악을 돌이켜 본다. 이때 두 마리의 개와 스라오샤(Sraosha)가 함께 하며, 사그디드(Sagdid, ‘개의 응시’) 의식을 통해 시신 앞에 불려온 개가 악령(Nasu)을 몰아낸다.³⁹ 사흘이 지난 후 4일째 되는 날 영혼은 친바트 페레투(Činvat Peretu)로 인도된다.⁴⁰ 친바트는 아베스타어로 ‘심판’ 또는 ‘분리’를 의미하며, 페레투는 다리를 뜻한다. 즉 친바트 페레투는 ‘분리의 다리’이자 ‘심판의 다리’로, 영혼이 선과 악의 판결을 받는 장소이다.⁴¹

이 다리는 아후라 마즈다가 만든 신성한 다리로서, 다리 앞에서 영혼은 개들과 함께 아름답고 균형잡히고 강한 존재로 묘사되는 ‘다에나(Daena)’를 만나게 된다.⁴² 다에나는 영혼의 도덕적

39 심영신, 「인간 삶의 동반자, 죽음의 협조자: 북방 유라시아 문화권의 미술로 읽는 개」, 『崇實史學』 53 (2024. 12), pp. 273-277. 조로아스터교의 장의는 아베스타(Avesta)의 「비데브다드(Videvdād, “악령을 쫓는 법”）」에 기초하여 거행된다.

40 친바트 페레투라는 이름은 “심판의 건널목”을 의미한다. 페레투는 지하수의 여울 혹은 나무라는 의미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 말이 어떤 심연 위에 드리운 다리가 된 것은 높은 곳의 낙원에 대한 믿음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메리 보이스, 앞의 책, p. 160.

41 아마 심판을 하고, 보상을 받는 장소로 분리되기 때문인 것 같다.

삶을 반영하는 존재로, 선한 삶을 산 자에게는 아름다운 처녀의 모습으로, 악한 삶을 산 자에게는 흉측한 마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⁴³ 다에나는 스라오샤와 함께 영혼을 보호하며, 다리에서 악마들이 영혼을 지옥으로 끌어내리려 할 때 이를 막는다.⁴⁴ 『분다히스』에 따르면, 의로운 영혼은 다리를 건널 때 따뜻한 우유 속을 걷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악한 영혼은 녹아내린 금속 위를 걷는 것처럼 극심한 고통을 경험한다고 한다.⁴⁵ 또한, 다른 기록에서는 친바트 다리를 날카로운 칼날로 묘사하고 있다.

“다리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서 있다. … 그리고 다리 아래에는 지옥이 있다. 그 후 영혼은 다리의 날카로운 끝으로 이동하게 된다. 만약 의로운 영혼이라면 칼날이 넓어지며 안전하게 건널 수 있지만, 악한 영혼에게는 칼날이 날카로운 채로 남아 있으며 지나갈 길을 허락하지 않는다. 영혼은 세 걸음을 내디딘다. 이는 그가 생전에 행한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을 상징하는데, 이 세 걸음 후 영혼은 다리에서 떨어져 머리부터 지옥으로 추락한다.”⁴⁶

친바트 다리는 단순한 심판의 장소가 아니라, 심판 자체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작용한다. 완전히 악한 자는 다리에서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벌을 받으며, 그렇지 않은 영혼은 다리 끝에서 라슈누(Rashnu, 정의의 신)⁴⁷ 미트라(Mithra, 계약과 정의의 신)의 심판을 받는다.⁴⁸ 라슈누는 정의의 저울을 이용해 인간의 행위를 세밀하게 측정하며, 선한 것이 악한 것보다 무거우면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으로 떨어진다.⁴⁹ 심판의 과정에서 정의의 신이자 공정한 재판관인 라슈누는 천 개의 판결을 내리는 자로 묘사되며 그의 정의의 저울은 인간의 행위를 세밀하게 측정하는 중요한 심판 도구이다.⁵⁰ 이러한 개념은 이집트의 ‘마아트’의 저울’과

42 『벤디다드(Vendidad)』 19장 30절, <https://www.avesta.org/vendidad/>.

43 2025년 1월 25일 검색, <https://www.britannica.com/topic/ancient-Iranian-religion/Human-nature#ref559680>.

44 스라오샤는 강하고 신성한 청년의 모습으로 묘사되며, 보호자의 역할도 수행한다. 아후라 마즈다는 인간을 괴롭히는 악령들을 처벌하기 위해 스라오샤를 보낸다. 2025년 1월 25일 검색, <https://www.britannica.com/topic/Sraosha>.

45 『분다히스(Bundahishn)』, 30장 20절.

46 관련된 내용들은 『야스나(Yasna)』 46장 10절, 『벤디다드』 19장 27절 등에 나온다.

47 라슈누는 조로아스터교의 성전인 아베스타(Avesta)의 『야슈트(Yasht)』에서 찬미된다. 2025년 1월 23일 검색, <https://www.britannica.com/topic/Rashnu>.

48 『야스나(Yasna)』 22장 22절, 라슈누는 미트라(Mithra), 스라오샤(Sraosha)와 함께 사후 심판을 주관한다.

49 메리 보이스, 앞의 책, p. 308; 조로아스터교에서 천국은 가루 데마나(Garu demāna)라고 불리며, 이는 아후라 마즈다가 다스리는 이상적인 공간으로 묘사된다. 반면, 지옥은 드루즈 데마나(Druj demāna)로 불리며, 이는 악신인 앙그라 마이뉴(Angra Mainyu, 아리만)가 지배하는 곳이다.

50 『야슈트(Yasht)』 12장 7-9절, 『분다히스(Bundahishn)』 30장 2-4절.

유사하며, 조로아스터교에서도 인간의 행위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정의의 저울이 사용된다는 점에서 공통된 관념을 보여준다.

한편 친바트 다리가 위치한 곳은 하라 베레자이티(Hara Berezaiti, 신성한 산)로 영혼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이상적인 장소로 묘사된다.⁵¹ 고대 서아시아-지중해 문화권에서 일반적으로 사후 심판 장소를 지하세계로 인식했던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조로아스터교의 심판이 친바트 다리와 라슈누의 판결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중앙아시아의 소그디아나 지역을 근거지로 하여 동서무덤에 종사했던 소그드인의 납골기 혹은 석관의 부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타슈켄트 역사박물관 소장 납골기 단편에서는 라슈누의

저울이 묘사된 도상이 눈에 띈다(Fig. 10). 부조의 아랫부분에는 죽은 자의 영혼이 건너는 친바트 다리 위에 저울을 든 라슈누와 홀을 든 인물이 표현되어 있다. 홀을 든 인물은 심판을 받으러 온 영혼이거나 미트라일 가능성이 있다. 다리 아래쪽에는 소용돌이치는 공간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는 지옥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조는 정의의 저울을 강조하여, 조로아스터교에서 영혼의 행위가 정확한 심판을 받는 과정을 강조한 것이다.

한편, 친바트 다리를 지나 심판을 받은 후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묘사된 사례도 존재한다. 소그드인 사군묘(史君墓)의 석당 서벽 부조에서는, 중앙과 우측 패널에 사후 세계로 이어지는 다리가 등장한다(Fig. 11).⁵² 이 다리는 우아한 곡선을 이루며, 기둥이 받치는 구조로 묘사되었다. 다리 위에는 말을 탄 인물과 동물들이 줄지어 이동하는 모습이 보이며, 이들은 무덤의 주인 부부를 상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리 아래쪽에는 물속에서 머리를 내밀고 있는 존재들이



Fig. 10. <소그드인 납골기의 파편> Fragment of a Sogdian Ossuary, Tashkent History Museum (Frantz Grenet and Michele Minardi, "The Image of the Zoroastrian God Srōsh: New Elements," p. 156, Fig. 2.)

51 『벤디다드(Vendidad)』 19장 30절, "의로운 자들의 길인 친바트 다리는 높은 산 하라(Harā)의 정상에 위치해 있다," 야스나(Yasna) 19장 6절.

52 친바트 다리에 관해서 Judith A. Lerner, "Les Sogdiens en Chine: Nouvelles découvertes historiques, archéologiques et linguistiques," *Orientations* 34, no. 8 (2004): 158. 姜栢勤, 「北周粟特人史君石堂圖像考察」, 『藝術史研究』 第7輯 (2005), pp. 289-290. 정완서, 「중국에서 발견된 소그드인 무덤 미술 재고찰-소그드인 석장구 도상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연구』 15 (2010), pp. 341-344. 그밖에 소그드 석장구 및 중국 사군묘에 관한 연구는 심영신, 「소그드 석장구 발견 현황과 구미의 연구사」, 『중국사 연구』 129 (2020. 12), pp. 39-78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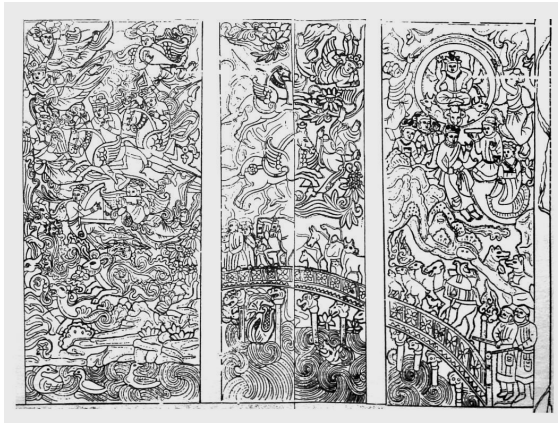


Fig. 11. <소그드인 史君墓의 부조> East Wall Exterior (Left) and Floor Plan (Right) for Sogdian Tomb of Shi Jun, 579-580 CE, Northern Zhou Dynasty, Shaanxi History Museum (National Museum of Asian Art, <https://sogdians.si.edu/shi-juns-sarcophagus/>)

지옥에 떨어질 악인을 노리고 있다. 우측 패널에서 다리 위쪽으로는 산의 형상이 표현되었는데, 이는 친바트 다리가 있는 하라산을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 위에는 연회를 벌이는 인물들과 바람의 신인 베스파커(Weshparkar)가 등장하며, 중앙 패널에는 날개 달린 말과 날개 달린 존재들이 묘사되어 있어, 이 장면이 선한 영혼만이 갈 수 있는 천국(Garudemāna)을 표현한 것임을 시사한다. 석관의 오른쪽 하단에는 두 명의 파담(Padam)을 쓴 성직자와 두 마리의 개가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사그디드(Sagdid) 의식을 포함한 3일간의 장례 과정을 표현한 것이다. 결국, 이 장면은 4일째 되는 날 영혼이 심판의 다리를 건너는 과정을 묘사한 것이다. 이와 같은 표현을 통해 심판의 다리를 ‘분리의 다리’라고도 부르는 이유는 그 다리가 생과 사의 경계를 확정짓는 역할을 하기 때문일 것이다.

친바트 다리를 묘사한 사례 중에서도 장례 의식이 더욱 강조된 예도 존재한다. 일본 사가현(Saga Prefecture) 미호 박물관(Miho Museum) 소장 석관상 위병의 한 패널 부조에서는 사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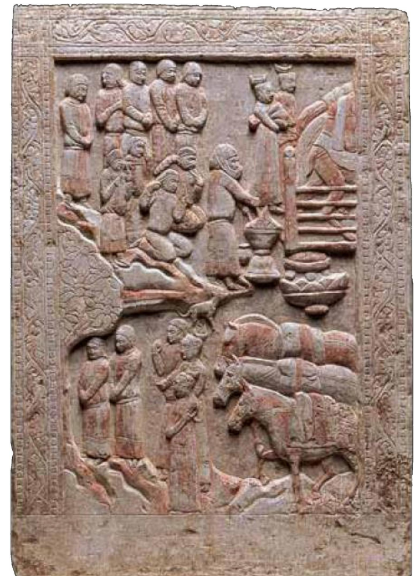


Fig. 12. <장례 장면> Funeral Scene, Part of the Honor Guard on a Sarcophagus, Miho Museum (Wikimedia, <https://www.wikimedia.org/>)

디드 의식을 상징하는 개의 모습, 얼굴에 상처를 내고 애도하는 인물들, 그리고 막 친바트 다리 위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묘사되어 있다(Fig. 12).⁵³ 이러한 표현을 통해, 조로아스터교에서 사후 심판뿐만 아니라 장례 의식과 영혼의 여정을 중요한 종교적 과정으로 인식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VI. 맺음말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리스, 중앙아시아를 포함하여 페르시아 문화권의 사후세계관은 모두 '사후 심판'을 핵심 요소로 포함하고 있다. 특히 메소포타미아-지중해 문화권에서는 사후 세계를 지하세계로 설정하고 그 안에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공통적인 인식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개념은 단순한 신화적 요소를 넘어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심판 구조와 절차를 갖춘 관념으로 발전하였다.

사후 심판의 과정을 기록한 이집트, 그리스, 서아시아의 고대 문헌들에서는 사후 심판의 과정을 설명하는 주요 요소로 '심판의 저울'과 '저승의 강'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이집트에서는 '미아트의 저울'을 통해 망자의 선악을 측정하여 사후의 운명을 결정하였고, 조로아스터교에서는 '라슈누의 저울'이 인간의 행위를 계량적으로 평가하는 도구로 기능하였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저승의 강'이 생과 사의 경계를 상징하며, 망자가 이를 건넌 후 비로소 사후의 세계에 진입하게 되는 구조를 형성하였다. 한편, 조로아스터교의 '친바트 다리'는 이러한 경계 개념을 더욱 구체화한 도상으로, 단순히 생과 사를 구분하는 요소를 넘어, 영혼이 최종적으로 천국 혹은 지옥으로 갈라지는 심판의 장소로 기능하였다. 이러한 도상들은 특정 종교 전통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고대 동서 문명 간의 교류 속에서 확산되며 다양한 형태로 변주되었음을 알려준다.

사후 심판 개념은 고대 장례의식과 밀접하게 연결되며, 관련 미술품에 시각적으로 형상화되었다. 예를 들어, 이집트의 《사자의 서》에 묘사된 심판 장면, 그리스·로마 신화에서 저승의 강을 건너는 망자의 여정, 소그드인의 석관에 표현된 친바트 다리를 건너는 영혼의 모습 등은

⁵³ 일본 미호뮤지엄 소장 석관상위병에 대한 연구서는 서남영, 「일본의 소그드 연구 동향-주요 연구와 미호뮤지엄 소장 석관상위병 검토」, 『동양미술사학』 11 (2020. 9), pp. 7-30 참고.

각각 해당 문화권에서 사후 심판 개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각화되었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중앙아시아 소그드인의 납골기 부조에 나타난 ‘심판의 저울’과 ‘친바트 다리’의 병치는, 이러한 개념이 동서 문화의 교류 속에서 융합되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도상적 요소들은 지역마다 표현 방식에 차이를 보이지만, ‘심판’이라는 공통된 사후세계관을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었다. 이러한 도상들은 결국 불교 미술과 결합되어 동아시아 문화권으로 전파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예가 바로 둔황 시왕도에서 확인된다.

둔황 시왕도의 장면에는 저승의 강, 심판의 저울, 다리와 같은 요소들이 등장하는데, 이는 불교의 지옥관이나 윤회사상과 더불어 서아시아-지중해 문화권의 사후 심판 개념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복합적 도상은 단순한 불교 도상 체계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다양한 내세 관념이 융합되어 형성된 것임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고대 서아시아-지중해 문화권에서 발전한 사후 심판 개념이 불교의 윤회사상과 결합하여 둔황 시왕도의 도상으로 구체화되었음을 밝혔다. 이는 둔황 시왕도에 대한 기존의 불교 내부 해석을 확장시키는 한편, 불교 미술 속에 내재된 사후세계 도상의 기원을 보다 다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해석 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학술적 의의를 지닌다.

* 주제어(keywords)_고대 서아시아(ancient West Asia), 지중해 문화권(Mediterranean cultural sphere), 메소포타미아(Mesopotamia), 이집트(Egypt), 그리스(Greece), 페르시아(Persia), 사후세계관(afterlife beliefs), 지하세계(underworld), 심판의 저울(scales of judgment), 저승의 강(river of the underworld), 친바트 다리(Chinvat Bridge)

■ 투고일 2025년 2월 10일 | 심사개시일 2025년 2월 12일 | 심사완료일 2025년 3월 7일 ■

참고문헌

1. 한국어 문헌

- 강성열, 『고대 근동의 신화와 종교』, 살림, 2006.
- 공원국, 『유라시아 신화 기행』, 민음사, 2014.
- 김산해, 『(최초의 역사) 수메르』, 휴머니스트, 2021.
- _____, 『신화는 수메르에서 시작되었다: 인류 정신세계의 원형을 찾아서』, 가람기획, 2003.
- 김현선 외 6인, 『중동신화여행: 신화, 아주 오래된 이야기』, 아시아, 2018.
- 김호동, 『아틀라스 중앙유라시아사』, 사계절, 2016.
- 도현신, 『지도에서 사라진 종교들』, 서해문집, 2016.
- 르네 구르쎈 저, 김호동 · 유원수 · 정재훈 역, 『유라시아 유목제국사』, 사계절, 1998.
- 마르크 반드 미예를 저, 김구원 · 강후구 역, 『고대 근동 역사』, CLC, 2016(2004년 초판).
- 메리 보이스 저, 공원국 역, 『조로아스터교의 역사』, 민음사, 2020.
- 배상식, 「플라톤 'Er신화'의 도덕교육적 함의」, 『초등도덕교육』 49, 2015. 9.
- 새뮤얼 노아 크레이머 저, 박성식 역, 『역사는 수메르에서 시작되었다: 인류 역사상 '최초' 39가지』, 가람기획, 2018.
- 서남영, 「일본의 소그드 연구 동향-주요 연구와 미호뮤지엄 소장 석관상위병 검토」, 『동양미술사학』 11, 2020. 9.
- 서윤경, 「中國 喪葬美術의 東西交流-北朝시기 西域民族의 石葬具를 중심으로」, 『미술사논단』 24, 2007.
- 신양섭, 「페르시아 문화의 동진과 소그드 민족의 역할-조로아스터교와 마니교를 중심으로-」, 『중동연구』 27, 2008.
- _____, 「페르시아 문화의 동진과 조로아스터교」, 『한국중동학회논총』 30-1, 2009.
- 심영신, 「선택과 적응-6세기 후반 상장 미술을 통해 본 중국 소그드인의 정체성」, 『동북아역사논총』 71, 2021. 3.
- _____, 「소그드 石葬具 발견 현황과 歐美의 研究史」, 『중국사 연구』 129, 2020. 12.
- _____, 「인간 삶의 동반자, 죽음의 협조자: 북방 유라시아 문화권의 미술로 읽는 개」, 『崇實史學』 53, 2024. 12.
- 알프레트 J. 허트 외 2인 편집, 신득일 · 김백석 역, 『고대 근동 문화』, CLC, 2023(2012년 초판).
- 유흥태, 『고대 페르시아의 역사-아메케니드 페르시아, 파르티아 왕조, 사산조 페르시아』, 살림, 2008.
- _____, 『페르시아의 종교: 조로아스터교, 미트라교, 마니교, 마즈닥교』, 살림, 2010.
- 이송란 외, 『(실�크로드 인플루언서) 소그드의 미술』, 학연문화사, 2024.
- 이승희, 「메소포타미아의 여신 인안나/이슈타르 도상과 정체성의 변화」, 『동양미술사학』 18, 2024. 2.
- 장영란, 「고대 그리스의 죽음과 영혼의 제의의 철학적 의미」, 『동서철학연구』 31, 2004.
- 정완서, 「중국에서 발견된 소그드인 무덤 미술 재고찰-소그드인 석장구 도상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연구』 15, 2010.

제카리아 시친 저, 이근영 역, 『수메르, 혹은 신들의 고향』, AK, 2009.
조철수, 『수메르 신화』, 서해문집, 2003.
주동주, 『수메르 문명과 역사』, 범우, 2018.

2. 동양어 문헌

姜栢勤, 「北周粟特人史君石堂圖像考察」, 『藝術史研究』 第7輯, 2005.
影山悦子, 「中国北部に居住したソグド人の石製葬具浮彫」, 『西南アジア研究』 61, 2004.
郭俊叶, 「敦煌晚唐“地藏十王”图像补说」, 『华夏考古』, 2011年 4期.
稲垣肇, 『中国北朝石製葬具の発展と MIHO MUSEUM 石榻圍屏門闕の復元試論』, 『MIHO MUSEUM研究紀要』 9, 2009.
刘传启, 「敦煌十王斋的营办」, 『乐山师范学院学报』, 2018年 1期.
西安市文物保护考古所, 「西安北周凉州萨保史君墓发掘简报」, 『文物』, 2005-3.
西安市文物保护考古所, 「西安市北周史君石椁墓」, 『考古』, 2004-7.
钱光胜, 「晚唐五代敦煌十王会与蜀地十王造像初探」, 『兰台世界』, 2012年 24期.
太史文, 党燕妮, 杨富学, 「中阴图:敦煌出土插图本《十王经》研究」, 『西夏研究』 4, 2014.
郝爱莲, 「敦煌十王信仰研究综述」, 『河西学院学报』 31(1), 2015.

3. 서양어 문헌

Asher-Greve, Julia M. and Joan G. Westenholz. *Goddesses in Context: On Divine Powers, Roles, Relationships and Gender in Mesopotamian Textual and Visual Sources*. Fribourg: Academic Press Fribourg and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3.
Barrett, Caitlín. “Was Dust Their Food and Clay Their Bread? Grave Goods, the Mesopotamian Afterlife, and the Liminal Role of Inana/Ishtar.” *Journal of Ancient Near Eastern Religions* 7, no. 1 (2007): 7-65.
Baumer, Christoph. *The History of Central Asia: The Age of the Silk Roads*. London and New York: I. B. Tauris, 2014.
Dalley, Stephanie. *Myths from Mesopotami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Foster, Benjamin R. *The Epic of Gilgamesh*. Norton Critical Edition.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2001.
Grenet, Frantz and Michele Minardi. “The Image of the Zoroastrian God Srōsh: New Elements.” *Ancient Civilizations from Scythia to Siberia* 27 (2021): 154-173.
Hart, George. *A Dictionary of Egyptian Gods and Goddesses*.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86.
Jenkins, Nancy. *The Boat Beneath the Pyramid: King Cheops' Royal Ship*.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80.
Laissouf, Ayoub. “Death, Funeral Rituals, and Afterlife in Ancient Egypt.” Self-published, Academia.edu, 2015. Accessed January 13, 2025, <https://www.academia.edu/24371541/>

Death_Funeral_Rituals_and_Afterlife_in_Ancient_Egypt.

- Lerner, Judith A. "Central Asian in Sixth Century China: A Zoroastrian Funerary Rite." *Iranica Antiqua* 30 (1995): 179-190.
- _____. "Zoroastrian Funerary Beliefs and Practices Known from the Sino-Sogdian Tombs in China." *The Silk Road* 9 (2011): 27-38.
- _____. "Les Sogdiens en Chine: Nouvelles Découvertes Historiques, Archéologiques et Linguistiques." *Orientations* 34, no. 8 (2004): 151-162.
- López-Ruiz, Carolina, Fumi Karahashi, and Marcus Ziemann. "They Who Saw the Deep: Achilles, Gilgamesh, and the Underworld." *KASKAL: Rivista di storia, ambienti e culture del Vicino Oriente Antico* 15 (2018): 245-272.
- Marshak, Boris I. "Miho Couch and the Other Sino-Sogdian Works of Art of the Second Half of the 6th Century." *Bulletin of Miho Museum* IV (2004a): 5-25.
- _____. "The Sarcophagus of Sabao Yuhong, a Head of the Foreign Merchants (592-98)." *Orientations* 35, no. 7 (2004b): 32-38.
- Morris, Ian. *Death-ritual and Social Structure in Classical Antiqu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 Taylor, John H. *Death and the Afterlife in Ancient Egyp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1.
- van Blerk, N.J. "The Emergence of Law in Ancient Egypt: The Role of Maat." *Fundamina* 24, no. 1 (2018): 69-88.
- _____. "The Ancient Egyptians' 'Religious World': The Foundation of Egyptian Law." *Journal for Semitics* 28, no. 1 (2019): 7-13.
- Vongdip, Stephen Hosea and Agai Matthew Jock. "A Conceptual Study of the Judgment of the Dead in Ancient Egypt." *Journal of Culture, History and Archaeology* 5, no 1 (January 2025): 1-9.
- Wiggermann, Frans A.M. "Nergal A. Philologisch." *Reallexikon der Assyriologie und vorderasiatischen Archäologie* 9 (2001): 215-222.

4. 데이터베이스 및 웹사이트

브리태니카 백과사전, <https://www.britannica.com/>
성스러운 문서(Sacred Texts), <https://sacred-texts.com/>
세계 역사 백과사전, <https://www.worldhistory.org/>
수메르 문학 전자 텍스트 자료집 (ETCSL), <https://etcsl.orinst.ox.ac.uk/>
아베스타, <https://www.avesta.org/vendidad/>
아카데미아 에듀, <https://www.academia.edu/>
오디세이아, <http://www.davincimap.co.kr/>
옥스퍼드 대학 피라미드 텍스트, <http://www.pyramidtextsonline.com/>
함부르크 대학교 아카데미 에듀, <https://uni-hamburg.academia.edu/>

References

1. Secondary Sources in Korean

- Boyce, Mary. *Choroasūt'ōgyo ūi yōksa*[*A History of Zoroastrianism*]. Translated by Wōnkuk Kong. Sōul: Minūmsa, 2020.
- Chang, Yōngran. "Kodae Kūrisū ūi chukūm kwa yōnghon ūi cheūi ūi ch'ōrhak chōk ūimi[The Philosophical Meaning of the Rituals of Death and Soul in Greece]", *Tongseo ch'ōrhak yōn'gu* 31 (2004): 5-24.
- Cho, Ch'ōlsu. *Sumerū sinhwa*. P'aju: Sōhae munjip, 2003.
- Chōng, Wansō (Jeong, Wan Seo). "Chungguk esō palgyōn toen Sogūdüin mudōm misul chaegoch'al-Sogūdüin sōkchanggu tosang ūl chungsim ūro[Rethinking Sogdian Funerary Arts Excavated in China]", *Chungang Asia yōn'gu* 15 (2010): 327-350.
- Chu, Tongchu. *Sumerū munmyōng kwa yōksa*. P'aju: Pōmu, 2018.
- Grousset, René. *Yur'asia yumok cheguksa*. Translated by Hotong Kim, Wōnsu Yu, and Chaehun Chōng. P'aju: Sagyejōl, 1998.
- Hoerth, Alfred J., Gerald L. Mattingly, and Edwin M. Yamauchi, eds. *Kodae kūndong munhwa*[*Peoples of the Old Testament World*]. Translated by Tūkil Sin and Paeksōk Kim. Suwōn: CLC, 2023 (first edition 2012).
- I, Songran, Matteo Compareti, Sūnghūi I, Hyōnsuk So, Yōngsin Sim, Namyōng Sō, Kyōngmi Chu, Ūnkyōng Kim, Kukhūi Ch'oe, and Arim Pak. (*Silk'ūroclū inp'ūlluōnsō*) *Sogūdü ūi misul*. Sōul: Hakyōn munhwasa, 2024.
- I, Sūnghūi (Lee, Seunghui). "Mesop'ot'amiō ūi yōsin Inanna/Isyut'arū tosang kwa chōngch'esōng ūi pyōnhwa[The Transformation of the Mesopotamian Goddess Inanna, Ishtar's Iconography and Identity]", *Tongyang Misulsahak* 18 (February 2024): 7-39.
- Kang, Sōngyōl. *Kodae kūndong ūi sinhwa wa chonggyo*. P'aju: Sallim, 2006.
- Kim, Hotong. *At'ūllasū chungang Yur'asiasa*. P'aju: Sagyejōl, 2016.
- Kim, Hyōnsōn, Hyechōng Kim, Chiūn Si, Ūnhūi Kim, Yōnu Sin, Hyechōng I, and Hyōnsōn Mun. *Chungdong sinhwa yōhaeng: sinhwa,aju orae toen iyagi*. P'aju: Asia, 2018.
- Kim, Sanhae. *Sinhwa nūn Sumerū esō sijak toeōtta: illyu chōngsin segye ūi Wōnhyōng ūl ch'ajasō*. Sōul: Karam kihoeok, 2003.
- _____. (*Ch'oech'o ūi yōksa*) *Sumerū*. Sōul: Hyumōnisūt'ū, 2021.
- Kong, Wōnkuk. *Yurasia sinhwa kihaeng*. Sōul: Minūmsa, 2014.
- Kramer, Samuel Noah. *Yōksa nūn Sumerū esō sijak toeōtta: illyu yōksasang 'ch'oech'o' 39 kaji*[*History Begins at Sumer: Thirty-Nine Firsts in Recorded History*]. Translated by Sōngsik Pak. Kwangju: Karam kihoeok, 2018.

- Pae, Sangsik. "P'üllat'on 'Er sinhwa' üi todök kyoyuk chök hamüi[The Plato's 'Myth of Er' and Its Implications for Moral Education]", *Ch'odüing todök kyoyuk* 49 (September 2015): 143-177.
- Sim, Yöngsin (Shim, Yeoung shin). "Sogüdü sökchanggu palgyön hyönhwang kwa kumi üi yön'gusa[Discovery of Sino-Sogdian Funerary Monuments and the State of the Field in Western Academia]", *Chungguksa yön'gu* 129 (December 2020): 39-56.
- _____. "Söntaek kwa chöküing-6segi huban sangjang misul ül t'onghae pon Chungguk Sogüdüin üi chöngch'esöng", *Tongbuga yöksa nonch'ong* 71 (March 2021): 439-484.
- _____. "In'gan sam üi tongbanja, chüküm üi hyöpchoja: pukpang Yurasia munhwagwön üi misul ro ingnün kae", *Sungsilsahak* 53 (December 2024): 253-283.
- Sin, Yangsöp. "P'erüsia munhwa üi Tongjin kwa Sogüdü minjok üi yökhal-choroasüt'ögyo wa manjigyo rül chungsim üro-[East Spread of Persian Culture and the Role of Sogdians]", *Chungdong yön'gu* 27 (2008): 1-23.
- _____. "P'erüsia munhwa üi Tongjin kwa choroasüt'ögyo[The East Expansion of Persian Culture and Zoroastrianism]", *Han'guk chungdong hak'oe nonch'ong* 30, no. 1 (2009): 33-73.
- Sitchin, Zecharia. *Sumertü, hok'ün sindül üi kohyang*. Translated by Künyöng I. Söul: AK, 2009.
- Sö, Namyöng (Seo, Nam-young). "Ilbon üi Sogüdü yön'gu tonghyang-chu'yo yön'gu wa Miho Myujiöm sojang sök'kwan sangwi pyöng kömt'o[Japanese Sogd Research Trends-a Review of the Major Research and Sarcophagi of the Miho Museum in Japan]", *Tongyang Misulsahak* 11 (September 2020): 7-29.
- Sö, Yunkyöng. "Chungguk sangjang misul üi tongseo kyoryu-pukch'o sigi söyuk minjok üi Sökchanggu rül chungsim üro[East-West Cultural Exchanges in Chinese Funeral Arts : Stone Sarcophaguses of the Northern Dynasties]", *Misulsa nondan* 24 (2007): 97-127.
- To, Hyönsin. *Chido esö sarajin chonggyodül*. P'aju: Söhae munjip, 2016.
- Van De Mieroop, Marc. *Kodae kündong yöksa[A History of the Ancient Near East]*. Translated by Kuwön Kim and Huku Kang. Suwön: CLC, 2016 (first edition 2004).
- Yu, Hüngt'ae. *Kodae P'erüsia üi yöksa-Amek'enidü P'erüsia, P'arüt'ia wangjo, sasanjo P'erüsia*. P'aju: Sallim, 2008.
- _____. *P'erüsia üi chonggyo: Choroasüt'ögyo, Mit'üragyo, Manigyo, Majüdkakkyo*. P'aju: Sallim, 2010.

2. Secondary Sources in East Asian

- Guo, Junye. "Dunhuang wan Tang 'Dizang shi wang' tuxiang pushuo[A Supplement to the images of 'Kṣitigarbha and ten kings' in Dunhuang in the Late Tang Dynasty]", *Huaxia kaogu* 4 (2011): 116-119.
- Hao, Xianai. "Dunhuang shi wang xinyang yanjiu zongshu", *Hexi xueyuan xuebao* 31, no. 1 (2015): 49-52.
- Inagaki, Hajime. "Chügoku Hokuchö sekizei sögu no hatten to MIHO MUSEUM sekitö ihei monkaku

- no fukugen shiron”, *MIHO MUSEUM kenkyū kiyō* 9 (2009): 93-124.
- Jiang, Baiqin. “Beizhou suote ren shijun shitang tuxiang kaocha.” *Yishushi yanjiu* 7 (2005): 281-298.
- Kageyama, Etsuko. “Chūgoku hokubu ni kyojūshita sogudojin no sekizei sōgu ukibori”, *Seinan aija kenkyū* 61 (2004): 67-79.
- Liu, Chuanqi. “Dunhang shi wang zhai de yingban”, *Leshan shifan xueyuan xuebao* 1 (2018): 63-73.
- Qian, Guangsheng. “Wan Tang Wudai Dunhuang shi wang hui yu shudi wang zaoxiang chutan”, *Lantai shijie* 24 (2012): 1-4.
- Tai, Shiwen, Yanni Dang, and Fuxue Yang. “Zhongyin tu: Dunhuang chutu chatu ben ‘Shiwang jing’ yanjiu [Picturing Purgatory: Illustrated Versions of *The Scripture on the Ten Kings*]”, *Xixia yanjiu* 4 (2014): 108-116.
- Xianshi wenwu baohu kaogusuo. “Xianshi Beizhou shi jun shiguo mu”, *Kaogu* 7 (2004): 38-49.
- _____. “Xian Beizhou Liangzhou sabao shi jun mu fajue jianbao”, *Wenwu* 3 (2005): 4-33.

3. Secondary Sources in English

- Asher-Greve, Julia M. and Joan G. Westenholz. *Goddesses in Context: On Divine Powers, Roles, Relationships and Gender in Mesopotamian Textual and Visual Sources*. Fribourg: Academic Press Fribourg and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3.
- Barrett, Caitlín. “Was Dust Their Food and Clay Their Bread? Grave Goods, the Mesopotamian Afterlife, and the Liminal Role of Inana/Ishtar.” *Journal of Ancient Near Eastern Religions* 7, no. 1 (2007): 7-65.
- Baumer, Christoph. *The History of Central Asia: The Age of the Silk Roads*. London and New York: I. B. Tauris, 2014.
- Dalley, Stephanie. *Myths from Mesopotami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 Foster, Benjamin R. *The Epic of Gilgamesh*. Norton Critical Edition.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2001.
- Grenet, Frantz and Michele Minardi. “The Image of the Zoroastrian God Srōsh: New Elements.” *Ancient Civilizations from Scythia to Siberia* 27 (2021): 154-173.
- Hart, George. *A Dictionary of Egyptian Gods and Goddesses*.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86.
- Jenkins, Nancy. *The Boat Beneath the Pyramid: King Cheops’ Royal Ship*.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80.
- Laissouf, Ayoub. “Death, Funeral Rituals, and Afterlife in Ancient Egypt.” Self-published, Academia.edu, 2015. Accessed January 13, 2025, https://www.academia.edu/24371541/Death_Funeral_Rituals_and_Afterlife_in_Ancient_Egypt.
- Lerner, Judith A. “Central Asian in Sixth Century China: A Zoroastrian Funerary Rite.” *Iranica Antiqua* 30 (1995): 179-190.
- _____. “Zoroastrian Funerary Beliefs and Practices Known from the Sino-Sogdian Tombs in China.”

- The Silk Road* 9 (2011): 27-38.
- _____. “Les Sogdiens en Chine: Nouvelles Découvertes Historiques, Archéologiques et Linguistiques.” *Orientations* 34, no. 8 (2004): 151-162.
- López-Ruiz, Carolina, Fumi Karahashi, and Marcus Ziemann. “They Who Saw the Deep: Achilles, Gilgamesh, and the Underworld.” *KASKAL: Rivista di storia, ambienti e culture del Vicino Oriente Antico* 15 (2018): 245-272.
- Marshak, Boris I. “Miho Couch and the Other Sino-Sogdian Works of Art of the Second Half of the 6th Century.” *Bulletin of Miho Museum* IV (2004a): 5-25.
- _____. “The Sarcophagus of Sabao Yuhong, a Head of the Foreign Merchants (592-98).” *Orientations* 35, no. 7 (2004b): 32-38.
- Morris, Ian. *Death-ritual and Social Structure in Classical Antiqu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 Taylor, John H. *Death and the Afterlife in Ancient Egyp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1.
- van Blerk, N.J. “The Emergence of Law in Ancient Egypt: The Role of Maat.” *Fundamina* 24, no. 1 (2018): 69-88.
- _____. “The Ancient Egyptians' ‘Religious World’: The Foundation of Egyptian Law.” *Journal for Semitics* 28, no. 1 (2019): 7-13.
- Vongdip, Stephen Hosea and Agai Matthew Jock. “A Conceptual Study of the Judgment of the Dead in Ancient Egypt.” *Journal of Culture, History and Archaeology* 5, no 1 (January 2025): 1-9.
- Wiggermann, Frans A.M. “Nergal A. Philologisch.” *Reallexikon der Assyriologie und vorderasiatischen Archäologie* 9 (2001): 215-222.

4. Database and Websites

- Academy Edu, University of Hamburg, <https://uni-hamburg.academia.edu/>
- Academia.edu, <https://www.academia.edu/>
- Avesta, <https://www.avesta.org/vendidad/>
- Britannica, <https://www.britannica.com/>
- Electronic Text Corpus of Sumerian Literature (ETCSL), <https://etcsl.orinst.ox.ac.uk/>
- Odysseia, <http://www.davincimap.co.kr/>
- Sacred Texts, <https://sacred-texts.com/>
- The Pyramid Texts of Oxford University, <http://www.pyramidtextsonline.com/>
- World History Encyclopedia, <https://www.worldhistory.org/>

국문초록

본 연구는 고대 서아시아-지중해 문화권에서 형성된 사후 심판 개념과 그 도상적 표현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리스, 조로아스터교의 사후세계관에서는 공통적으로 사후 심판이 핵심 요소로 작용하며, 사후세계를 지하세계로 설정하고 망자의 운명을 결정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특히, 이들 문화권에서 사후 심판 개념은 단순한 신화적 요소를 넘어 보다 체계적인 심판 구조로 발전하였으며, 이는 저승의 강과 다리, 심판의 저울과 같은 상징적 도상을 통해 시각적으로 형상화되었다.

이집트에서는 미아트의 저울을 통해 망자의 선악을 평가하였고, 조로아스터교의 라슈누 저울 또한 인간의 행위를 계량적으로 측정하여 사후 운명을 결정하는 도상으로 자리 잡았다. 이후, 생과 사의 경계를 의미하는 '저승의 강과 심판의 다리' 개념이 도입되었으며, 조로아스터교의 친바트 다리는 단순한 생과 사의 분리선을 넘어 최종적으로 영혼을 천국과 지옥으로 가르는 심판의 장소로 기능하였다. 이러한 개념은 단순히 한 종교의 전통에 국한되지 않고, 동서 교류를 통해 확산되었음을 다양한 미술적 증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중앙아시아 소그드인의 납골기 부조에서 심판의 저울과 친바트 다리가 함께 묘사된 사례는, 사후 심판 개념이 동서 교류를 통해 확산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도상적 요소들은 지역별 차이를 가지면서도 일정한 공통점을 유지하며, 이후 동아시아 문화권으로 전파되었다.

이러한 사후 심판 개념과 도상은 중국으로 전파되면서 불교의 윤회사상과 융합되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둔황 시왕도이다. 둔황 시왕도에는 강과 다리, 심판의 저울 등의 도상이 등장하며, 이는 서아시아-지중해 문화권에서 발전한 사후 심판 개념과 일정한 연관성을 가진다. 본 연구는 서아시아-지중해 문화권의 사후 심판 개념이 동아시아 불교미술과 연결될 가능성을 조명함으로써, 시왕도 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이후 심층적인 분석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Abstract

Concepts and Iconography of Afterlife Judgment in the Religions of the Ancient West Asian – Mediterranean Cultural Sphere

Lee, Seunghui*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oncept of afterlife judgment and its iconographic representations as developed within the ancient West Asia-Mediterranean cultural sphere. In the afterlife beliefs of Mesopotamia, Egypt, Greece, and Zoroastrianism, afterlife judgment functions as a central element, with the underworld serving as the designated realm of the dead, where the fate of the deceased is determined. Particularly in these cultures, the concept of afterlife judgment evolved beyond mere mythological motifs into a structured system of judgment, visually represented through symbolic imagery such as the river and bridge of the afterlife and the scales of judgment.

In ancient Egypt, the weighing of the deceased's heart against the feather of Ma'at determined their moral standing, while in Zoroastrianism, the Rashnu Scales measured human deeds quantitatively, establishing a visual icon of afterlife judgment. Over time, the concepts of the 'river of the afterlife' and the 'bridge of judgment' emerged, symbolizing the boundary between life and death. The Chinvat Bridge in Zoroastrianism functioned not only as a passage separating the living from the dead but also as the ultimate site of judgment, dividing souls between heaven and hell. These ideas were not confined to a single religious tradition but spread through cultural exchanges between East and West, as evidenced by various artistic representations. Notably, the presence of both the scales of judgment and the Chinvat Bridge in reliefs on Sogdian ossuaries in Central Asia serves as key evidence of the transmission of afterlife judgment concepts through transregional exchanges. While these iconographic elements exhibit regional variations, they retain

* Research Professor, Namdo Cultural Research Center, Sunchon National University

consistent thematic features and later influenced the East Asian cultural sphere.

As these concepts of afterlife judgment and their visual representations were transmitted to China, they merged with Buddhist notions of reincarnation, most notably exemplified in the Dunhuang ‘Ten Kings of Hell’ paintings. The Dunhuang murals feature depictions of rivers, bridges, and scales of judgment, demonstrating a conceptual connection with the afterlife judgment traditions of the West Asia-Mediterranean cultural sphere. By exploring the links between these traditions and East Asian Buddhist art,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new perspective on ‘Ten Kings of Hell’ research and lay the foundation for further in-depth analysis of afterlife judgment iconography across cultural boundaries.